

‘좌타 저격수’ 이준영 “좌우 가리지 않는 킬러 돼야”

KIA타이거즈 선수단 을사년 출사표

TIGERS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는 1군에서 풀타임으로 제 몫을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KIA타이거즈의 원 포인트 릴리프로 위력을 과시한 이준영이 새해에는 더욱 강해진 모습을 꿈꾼다. 올해는 새로운 구종을 장착해 좌타자와 우타자를 가리지 않는 투수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다.

이준영은 최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시즌이 끝나고 (전)상현이, (윤)중현이랑 여행을 다녀왔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냈다”며 “시대를 돌아다니면 팬들이 많이 알아봐 주신다. 항상 야구장에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식당에서 계산도 해주시고 정말 사랑받는 것이 느껴진다”고 근황을 밝혔다.

이준영은 우승 직후 열린 V12 타이거즈 페스타에서 전상현과 함께 주르노마스와 상한로제페스타로 변신해 로제의 ‘APT.’를 패러디한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 팬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그는 “(양)현종이 형이랑 (나)성범이 형이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무대에 오르는 것보다 뮤직비디오를 찍어보라고 했다”며 “반응이 그렇게 좋을지 몰랐다. 야구보다 뮤직비디오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부끄러운 느낌도 있다”고 회상했다.



지난해 원 포인트 존재감 발휘 한국시리즈서도 네 경기 등판 포크볼 장착으로 업그레이드 올해는 1군 풀타임 활약 목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었던 데는 열두 번째 우승을 일궈낸 팀 성적과 원 포인트 릴리프로 맹활약한 개인 성적이 모두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이준영과 호흡한 전상현 역시 우승의 공신이다.

이준영은 “무엇보다 우승을 했다는 것이 좋았다.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팀이 정상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며 “필승조가 쉬는 날에 한 번씩 빈자리를 잘 때운 것 같다. 잘 막아서 최대한 다음 투수에게 주자를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고 말했다.



KIA타이거즈 이준영이 지난해 9월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D이노스와 홈경기에 구원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하지만 그에게도 아쉬움은 있다. 이준영은 개막 엔트리 승선이 불발되며 개막 약 열흘 뒤인 4월3일에서 처음 1군에 진입했고, 6월에는 열흘간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사실상 풀타임이지만 스스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준영은 “풀타임을 치르고 싶었는데 몸이 안 올라오면서 개막 엔트리에서 빠졌다”며 “중간에 한 번 아파서 부상자 명단에 오른 것이 가장 아쉽다. 큰 부상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아쉬움이 남는 만큼 새 시즌 목표는 풀타임이다. 아프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른다면 기록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생각이다. 체력을 구축하는 것이 비시즌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준영은 “목표는 항상 똑같이 풀타임이다. 기록적인 부분보다는 경기를 많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구종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자신이 없어서 많이 못 썼는데 올해는 우타자 상대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잘 연마해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영은 최근 KT위즈 소속인 고영표와 김민수, 손동현과 함께 일본 지바로 향했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비시즌 훈련을 통해 효과를 본만큼 올해도 해외 연수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세 명이 지바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서 배우고 싶다고 부탁하게 됐다”며 “도쿄에 다녀와서 도움이 많이 됐다. 올해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투구 폼 분석 등을 동시에 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한국 사격 꿈나무대표팀이 지난 12일 나주 국제종합사격장에서 동계전지훈련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유도·사격 꿈나무대표팀, 전남서 동계훈련 구슬땀

유도 41명·사격 45명 참여 국가대표 성장 목표로 훈련

유도와 사격 종목의 꿈나무대표팀이 전남에서 국가대표 성장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유도 꿈나무대표팀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여수 진남유도장에서, 사격 꿈나무대표팀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나주 국제종합사격장에서 각각 동계전지훈련 중이다.

이번 유도 꿈나무대표팀 훈련에는 임희대 감독과 지도자 7명, 의무트레이너 1명, 유소년 선수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훈련은 체력과 기술 향상, 전술 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주기적인 체력과 기술 테스트를 추가해 각 선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격 꿈나무대표팀 훈련에는 박희복(대전대신고) 전남지도자를 중심으로 소

총에 이희석·김성호·정연화 코치, 권종에 김정안·김아름·이주명 코치 등 전임지도자 6명과 의무트레이너 1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권총선수 20명(남 10명·여 10명), 소총선수 17명(남 8명·여 9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다.

훈련은 기본기술과 사격이론 습득, 전자 장비를 통한 과학적 훈련, 실전과 같은 기록 측정, 집중력 및 멘탈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유도와 사격 종목의 이번 꿈나무대표팀 전지훈련은 향후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유도·사격 꿈나무대표팀의 전지강화훈련 실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표팀의 훈련프로그램 참고 등 지역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K리그2 우승 공신’ 헤이스, 광주FC 전격 복귀

2021~2022년 측면서 맹활약 제주 이적 후 세 시즌 만 리턴

이정호 감독과 동행을 결정하고 태국 코사무이 1차 전지훈련을 통해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한 광주FC가 2022년 K리그2 우승 공신인 이스나이루 헤이스(사진)를 다시 품었다.

13일 복수의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가 측면 공격수 헤이스를 영입했다. 헤이스는 최근 제주SKFC와 계약 해지에 합의했으며 자유 계약(FA) 신분으로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헤이스의 영입설은 지난주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주와 제주가 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헤이스의 반대급부로는 오는 4월 국군체육부대(김천상



무FC)에서 복무를 앞둔 공격수 이건희가 언급됐다. 다만 애초부터 헤이스와 이건희의 이적은 별개 건으로 진행됐다.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는다는 점에서 트레이드 형태로 보일 수 있지만 두 선수 모두 계약 해지 후 FA 신분으로 이동했다. 헤이스의 영입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광주는 개인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지만 헤이스가 갑작스럽게 팀 성과와 개인 성적에 대한 옵션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상이류가 형성됐다.

광주가 영입 철학을 선언하고, 헤이스 역시 제주 복귀를 시사하며 협상은 결렬을 향했다. 하지만 헤이스가 옵션을 포기

하며 한발 물러났고, 전지훈련에 합류한 뒤 계약서 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헤이스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광주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그는 2021년 K리그1 30경기에서 4득점과 5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책임졌음에도 강등을 막지 못했다.

절치부심한 헤이스는 2022년 K리그2 39경기에서 12득점과 4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과 공격포인트를 모두 싹쓸이하며 우승과 함께 강등 직후 1부리그 복귀의 주역을 맡았다.

주가가 높아진 헤이스는 광주와 동행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2022시즌 종료 직후 제주로 이적해 2023년과 2024년 K리그1 64경기에서 12득점과 7도움을 올렸다.

한규빈 기자

전남드래곤즈, 알베르띠 영입으로 중원 강화

우루과이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

김현석 신임 감독 체제로 1부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호세 알베르띠(사진)를 영입하며 중원 강화를 꾀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수비형 미드필더 알베르띠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알베르띠는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과 강한 투쟁심이 돋보이는 선수로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능력이 뛰어나 경기 장악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6년 CA 후벤투스 데 라스 피에드라스를 통해 성인 무대에 데뷔한 뒤 CA 보스톤 리베르와 CS 에멜레코, 클럽 나시오날 데 풋볼, 몬테비데오 원더러스 등을 거쳤다.

지난해까지 아홉 시즌 동안 우루과이

무대에서만 활약한 알베르띠는 개인 통산 260경기에서 18득점과 32도움을 기록했고 이번 이적을 통해 첫 해외 도전에 나서게 됐다. 전남드래곤즈는 알베르띠를 영입하며 외국인 선수 영입 한도인 다섯 자리 중 네 자리를 채웠다. 알베르띠는 발디비아, 호난, 레안드로와 함께 전남드래곤즈의 승격 도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알베르띠는 구단을 통해 “처음 한국에 오게 됐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다”며 “올해 전남드래곤즈의 목표인 K리그1 승격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규빈 기자